

【논문】

## 본능적 지향성과 가치경험의 본성\*

—가치론의 현상학적 정초—

이 남 인\*\*

【주제분류】 현상학, 실천철학, 가치론

【주요어】 현상학, 본능, 본능적 지향성, 가치, 가치경험, 본성, 가치개시, 가치지각, 관념론, 실재론

【요약문】 이 논문의 목표는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서의 발생적 현상학적 가치론을 전개하면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절에서 욕구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하고 2절에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본능 현상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 3절과 4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서 본능이 담당하는 역할을 해명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5절과 6절에서는 가치경험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고 7절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 9월 4-11일 사이에 “Value, Values and Meaning”이라는 주제로 터키 Istanbul에서 개최된 국제철학원(IIP, Institut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2016년 정기총회에서 “Instinct and Value”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또한 2016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철학과 주최로 개최된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 강연회”에서 발표되었다. 정기총회 발표에 초청해주신 국제철학원 회장 I. Kucuradi 교수님, 강연회를 주최해주신 서울대 철학과 학과장 김상환 교수님, 그리고 두 차례 강연에서 질문을 통해 많은 것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 철학과

철학사에서뿐만 아니라, 현상학, 분석철학을 비롯한 현대철학의 다양한 사조에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이 선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을 살펴보면 우리는 가치경험의 본성을 둘러싼 가치론에 관한 논의가 아주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려는 것처럼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경험의 본성에 대한 그 어떤 일치된 견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거나 하듯이 가치경험의 본성을 이성으로 간주하는 합리주의(rationalism), 감정으로 간주하는 정감주의(sentimentalism), 욕구로 간주하는 욕구주의(conativism)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sup>1)</sup> 합리주의, 정감주의, 욕구주의는 각기 다시 다양한 하위 유형들로 나누어져 서로 경쟁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합리주의적 정감주의”(rational sentimentalism)와 같은 잡종 형태의 가치론도 존재한다.<sup>2)</sup> 그동안 등장한 다양한 가치론을 살펴보면 철학자의 수만큼 다양한 가치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동일한 철학자가 시기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치론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론에 대한 논의는 극도로 혼란스럽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치론을 전개하면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이 존재하며 이 각각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채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가치경험의 본성을 올바르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이 존재하며 이 각각이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론은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발생적 과정을 총체

1) 이 논문에서 합리주의, 정감주의, 욕구주의, 관념론, 실재론은 각각 가치론적 합리주의, 가치론적 정감주의, 가치론적 욕구주의, 가치론적 관념론, 가치론적 실재론을 뜻한다.

2) J. D'Armes/D. Jacobson (2000), 746.

적으로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발생적 현상학적 가치론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논의하겠지만 발생적 현상학적 가치론은 일종의 욕구주의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필자는 이러한 욕구주의를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욕구주의와 구별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라 부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려는 어떤 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sup>3)</sup>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고 그의 후기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욕구인 본능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E. Husserl)에 의해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 글의 목표는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철학사뿐 아니라 현상학, 분석철학을 비롯한 여러 현대철학사조에서 선보인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을 염두에 두고 때로는 그것들 중 몇몇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하고 그를 통해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데 있다. 우리는 1절에서 욕구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하고 2절에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본능 현상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 3절과 4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서 본능이 담당하는 역할을 해명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5절과 6절에서는 가치경험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고 7절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3) “가치와 가치관여행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요나스(H. Jonas)는 그의 저서(H. Jonas (2000))에서 가치 발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치 발생을 해명하려는 그의 분석은 필자의 분석과 다른데, 그 이유는 그의 분석이 가장 근원적인 유형의 욕구인 본능에 대한 해명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 욕구주의와 가치경험의 발생적 원천으로서의 욕구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욕구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욕구주의(conativism)는 합리주의, 정감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필자가 만든 신조어로서 욕구(conatus)를 가치경험의 발생적 원천으로 간주하는 가치론적 입장을 뜻한다.<sup>4)</sup> 따라서 욕구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가치경험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치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치경험은 그 무엇(X)을 가치의 담지자로서 경험하는 의식작용인데, 여기서 X가 담지하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 좋음)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가치(나쁨)일 수도 있으며, 중립적인 가치(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가치, 부정적인 가치, 중립적인 가치 등 세 가지 유형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경험은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언어에서 가치가 종종 긍정적인 가치와 동일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치경험을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가치경험의 본성을 논하면서 연구자들 역시 가치경험을 긍정적인 가치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쉐퍼(S. Schefer)는 X에 대한 가치경험이 “X가 좋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치있다는

4) 지금까지 선보인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 중에서 욕구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입장이 필자가 욕구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모든 점에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욕구주의의 정체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다양한 유형의 기존의 욕구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필자는 이제 그 대체적인 윤곽만을 제시하게 될 필자의 욕구주의를 기존의 욕구주의와 구별하여 진정한 의미의 욕구주의라 부르고자 한다. 기존의 다양한 가치론 중에서 욕구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욕구주의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믿음”<sup>5)</sup>을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암묵적으로 가치경험을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경험과 동일시하고 있다.

욕구(conatus)란 무엇을 추구하는 의식작용을 뜻한다. 욕망, 소원, 희망, 의지, 충동, 본능 등 다양한 유형의 욕구가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욕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욕구의 최초 상태는 불만족 혹은 비충족의 상태이며 욕구 작용이 계속되면서 주체는 이러한 불만족 내지 비충족의 상태에서부터 만족 혹은 충족의 상태로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노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욕구는 지적 작용도 아니요, 감정 작용도 아니며 이 둘과는 구별되는 제3의 고유한 작용이다.

이제 우리는 욕구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합리주의나 정감주의가 아니라 바로 욕구주의가 타당한 가치론적 입장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가치경험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욕구주의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무엇(q)을 접하면서 A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가치경험을 시작하는 데 반해 B는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그 어떤 가치경험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가치경험을 하기 시작한 A의 경우 q를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만 B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A는 q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눈을 뜨고 있으나” B는 그에 대해 전적으로 “눈 먼 상태”, 즉 “가치맹”(Wertblindheit, value-blindness)<sup>6)</sup>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 A와 B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양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A의 경우 q를 접하면서 그것을 향한 어떤 욕구가 작동하고 있

5) S. Schefer (2010), 29.

6) 하르트만(N. Hartmann)은 그의 『윤리학』에서 “가치맹”(Wertblindheit) (N. Hartmann (1963), 157)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쉐러(M. Scheler)는 자신의 내용적 가치윤리학을 전개하면서 “가치에 대해 눈먼”(wertblind) (M. Scheler (1980), 87)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 또 q가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B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3절에서 욕구의 일종인 섭생본능을 예로 들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욕구는 가치경험의 발생적 원천이다. 말하자면 어떤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어떤 욕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에게 그 욕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경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무엇의 가치는 [그를 향한 주체의] 욕구가능성이다.”<sup>7)</sup>라는 에렌펠스(C. von Ehrenfels)의 견해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욕구주의가 아니라, 정감주의가 타당한 가치론적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감정은 가치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감정을 가치경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토대로 간주하는 정감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욕구주의가 아니라, 정감주의가 타당한 가치론적 입장임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논증이 존재한다.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우리가 무엇을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욕구한다. 2) 이러한 사실은 가치경험에서 더 근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감정임을 함축한다. 3) 따라서 욕구가 아니라, 감정이 가치 경험의 원천이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 논증의 첫 번째 전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욕구주의는 우리가 무엇을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욕구주의에 의하면 가치경험의 주체로서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해 좋아하는 태도, 싫어하는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무엇과 관련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무엇에 대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체만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이든 그에 대한 감정

7) “Der Wert eines Dinges ist seine Begehrbarkeit.” (C. von Ehrenfels (1962), 253) 다음 문헌에서 재인용함: K. Schuhmann (1997), 102.

8) J. Ritter/K. F. Gründer/G. Gabriel (2004), 565.

을 가질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욕구는 감정의 발생적 원천이요 더 나아가 가치경험의 발생적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욕구주의가 가치경험에서 욕구가 차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경험에서 감정이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치경험에서 욕구가 감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욕구주의는 가치경험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욕구의 최초 상태는 불만족의 상태 또는 비충족의 상태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다름 아닌 일종의 감정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족의 상태로서의 욕구는 충족을 지향한다. 가치경험의 주체는 이 욕구가 충족될 경우 만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가치경험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욕구는 만족의 감정 내지 불만족의 감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욕구는 처음부터 감정과 결합된 욕구, 다시 말해 존스톤(M. Johnston)이 말하듯이, “정감적인 욕구”(an affective desire)<sup>9)</sup>이다.

## II. 가장 근원적인 욕구로서의 본능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유형의 욕구가 존재하며 다양한 유형의 욕구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본능이다. 따라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그 뿌리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본능과의 연관 속에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욕구주의를 견지해왔던 철학자들은 본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필자의 시도는 과거의 욕구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욕구주의인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정초하려

9) M. Johnston (2001), 183ff.

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시도는 동시에 정감주의를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이다. 그 이유는 본능이 가치경험의 하나의 구성요소인 감정의 발생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가치경험의 하나의 구성요소인 감정을 그 발생적 뿌리로부터 해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능을 해명해야 하며, 따라서 감정을 가치경험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정감주의는 본능을 가치경험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실제로 정감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들 중에는 가치경험에서 본능이 수행하는 역할을 해명함으로써 정감주의를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 탈바꿈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흄(D. Hume)과 후기 후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흄은 철학사 전체를 통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가치론적 정감주의자이다. 그는 이성을 가치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가치론적 합리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토대로 자신의 정감주의를 전개시켰다. 가치론적 합리주의의 전형적인 예는 커드워스(R. Cudworth, 1617-1688)의 도덕철학이다.<sup>10)</sup> 커드워스는 도덕철학을 전개하면서 수학적 진리와 도덕적 진리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에 의하면 수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진리 역시 영원한 초시간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적 진리가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듯이 도덕적 진리 역시 이성을 통해서 파악된다. 그러나 흄은 가치론적 합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성이 가치경험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도덕성은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낳거나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일을 방해한다. 이성 그 자체는 이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 따라서 도덕의 규칙들은 우리 이성의 결론일 수 없다.”<sup>11)</sup> 이처럼 합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흄은 “도덕이 판단을 통해 나

10) R. Cudworth (1996) 참조. 가치론적 합리주의에 대해서는 E. Husserl (2004), 129쪽 이하를 참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적절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실<sup>12)</sup> 을 지적하면서 감정이 바로 도덕의 기원(origin)이며 가치 일반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흄이 정감주의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감주의가 흄의 가치론의 전부는 아니다. 감정을 가치의 기원으로 간주하고 그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흄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근원적인 본능을 통하여 스스로를 선과 결합시키고 악을 피한다”<sup>13)</sup> 고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치의 출처가 본능이라고 말한다: “선과 악,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고통과 쾌락 이외에도 직접적인 정감(passions)은 종종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적 충동이나 본능으로부터 발생한다.”<sup>14)</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흄은 선과 악 등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을 감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충동이나 본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흄은 가치경험의 원천인 본능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정감주의를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 탈바꿈시켜야 할 필요성을 직시하였다.

1908년에서 1914년 사이에 걸쳐 행한 『윤리학 강의들』<sup>15)</sup>에서 후설은 본래 정감주의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기 철학에서 가치경험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을 심화시켜가면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본능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인격적 가치와 사실적 가치 [...]”(Personale Werte und Sachwerte [...])<sup>16)</sup>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931년에 집필된 한 유고이다. 물론 후설은 그 어디서도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능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초기 가치론적 정감주의를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 탈바꿈시켜야 할 필요성을 직시했음은 분명하다.

11) D. Hume (1978), 457.

12) D. Hume (1978), 470.

13) D. Hume (1978), 438.

14) D. Hume (1978), 439.

15) E. Husserl (1998).

16) E. Husserl (2014), 458ff.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흄이 자신의 정감주의를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로 탈바꿈시킬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로 가치경험의 원천인 본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는 고사하고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해명하고 있지 않다. 후설이 그의 후기 철학에서 본능의 현상학<sup>17)</sup>을 발생적 현상학의 가장 깊은 층으로서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해보자.

본능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투명한 개념이다. 본능은 종종 “본능운동”(Instinktbeziehung) 내지 “본능행동”(instinktives Verhalten)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경우 본능행동이란 동물의 집짓기, 짝짓기 등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뜻한다. 본능을 이처럼 정의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철학적 인간학을 전개한 겔렌(A. Gehlen)이다.<sup>18)</sup> 그러나 본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sup>19)</sup>

무엇보다도 이처럼 정의된 본능 개념은 너무 협소하다. 이러한 본능 개념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만이 본능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동물의 본능만을 포괄할 뿐 의식을 동반하면서 작동하는 인간의 다양한 본능은 포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성적 본능은 대부분의 경우 의식을 동반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본능행동으로서의 본능 개념은 인간의 성적 본능을 포괄할 수 없다. 그 이외에도 인간의 호기심 본능, 예술본능 등 정신적 본능도 의식을 동반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본능행동으로서의 본능 개념은 이러한 정신적 본능들을 포괄할 수 없다.

---

17) N.-I. Lee (1993)을 참고.

18) A. Gehlen (1974), 25.

19) 이남인 (2015). 아래의 내용은 이 논문에서 따왔다.

따라서 본능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물의 본능뿐 아니라 인간의 본능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본능 개념이 필요하다. 필자가 다른 곳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듯이 이처럼 넓은 의미의 본능 개념은 “어떤 종(종들)에 속하는 유기체들이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선천적인 생명적인 힘”을 뜻한다.<sup>20)</sup> 본능이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힘”을 뜻하기 때문에 본능은 일종의 지향성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지향성을 여타의 지향성과 구별하여 “본능적 지향성”이라 부르곤 한다.

모든 지향성이 그러하듯이 본능적 지향성 역시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능적 지향성의 노에시스는 다름 아닌 “선천적인 생명적 힘”, 즉 어떤 종(종들)에 속하는 유기체들이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선천적인 힘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성적 본능의 노에시스는 이성을 추구하는 성적 추동력으로서의 성적 에너지를 뜻하며 호기심 본능의 노에시스는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그것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인간의 정신적 힘을 뜻한다. 그리고 본능적 지향성의 노에마는 일종의 노에시스로서의 이러한 힘이 추구하는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뜻한다. 성적 본능의 노에마는 성적 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성적 대상을 뜻하고 호기심 본능의 노에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을 뜻한다.

“어떤 종(종들)에 속하는 유기체들이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선천적인 생명적인 힘”인 본능은 욕구의 일종이다. 인간에게는 본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인 욕구와 후천적인 욕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본능은 선천적인 욕구로서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원적인 유형의 욕구이다.

---

20) 이남인(2005).

### III. 본능과 가치개시작용

가치개시작용, 가치지각작용, 가치판단작용 등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이 존재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욕구가 가치의 발생적 원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욕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필자는 3절과 4절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 중에서 여타의 욕구는 사소한 채 본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가치경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가치개시작용, 가치지각작용, 가치판단작용 등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유형의 가치경험은 가치개시작용이다. 이 절에서는 본능이 가치개시작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C와 D가 피자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자집 창문을 통해 먹음직스러운 피자(p)를 보았고 C는 이 피자를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D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C는 p에 대해 일종의 가치경험을 하고 있는데 반해 D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C와 D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를 낳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가치론적 정감주의의 옹호자는 C는 p에 대해 좋음, 싫음, 중립적임 등 모종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D는 p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D는 p에 대해 기대감, 들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D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양자의 차이를 낳게 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가치경험을 낳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감정이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이다. C의 경우 p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해 나름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C에게서 섭생본능이 작동하여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D의 경우 p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먹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D에게서 섭생본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치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D에게 p는 길가에 있는 돌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D가 길가에 있는 돌을 먹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험하지 않듯이 그는 p 역시 먹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드러나듯이 C와 D의 결정적인 차이는 p를 대하는 순간 C의 경우는 섭생본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D의 경우는 섭생본능이 잠자고 있다는 데 있다.

C의 경우 p를 대하면서 섭생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p가 C에게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현출하기 시작하는데 반해 D의 경우 p를 대하면서 섭생본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p가 D에게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현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C와 D의 결정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의 경우 섭생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p가 C에게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개시되기 시작하는데 반해 D의 경우 섭생본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p가 D에게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개시되지 않는다. C와 D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섭생본능의 작동이 바로 p를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개시할 수 있는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작동하는 섭생본능은 p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처음으로 개시해주는 작용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음식물서의 p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C에게 처음으로 개시되는 순간은 C가 p를 맛보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피자집 창문을 통해 p를 처음 본 시점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가치경험의 두 유형, 즉 가치개시작용과 가치지각작용을 명료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가치지각작용은 C가 p를 실제로 맛보면서 시작되지만 가치개시작용은 C가 p를 맛보기 전에, 즉 C가 피자집 창문을 통해 p를 바라보는 순간 이루어진다. C가 피자집 창문을 통해 p를 바라보는 순간 C에게서 섭

생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C는 p를 섭생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 즉 먹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순간 C는 p를 단지 바라만 볼 뿐 그 맛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p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순간 C는 p가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p가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C의 의식작용이 바로 가치개시작용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개시작용을 토대로 C는 p를 구체적으로 맛보아가면서 p에 대한 가치지각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C는 p를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며 또 이 세 가지 방식 중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경험할 경우 그것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가게 된다.

이처럼 C에게서 작동하고 있는 섭생본능은 p가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C에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이다. 그러나 섭생본능은 p뿐 아니라, 모든 음식물이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C에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이다. 앞서 든 예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앞서 든 예에서 C가 피자집 창문을 통해 p를 바라볼 경우 p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빵, 음료, 스파게티 등 모든 음식이 C에게 먹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개시된다. 그 이유는 p를 포함하여 이 모든 음식이 섭생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C에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경우 이 음식점에 있는 음식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음식 역시 먹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C에게 개시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음식이 섭생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C에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섭생본능이 모든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으로서의 가치 전체, 즉 먹을 것으로서의 가치의 세계를 가치 경험의 주체에게 개시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논의되었듯이 p가 지닌 음식물로서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뜬 C와는 달리 D는 p를 접하면서 일종의 “가치맹”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C와는 달리 D의 경우 섭생본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D가 가치맹의 상태에 있다 함은 D가 음식물로서 p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뿐 아니라, 모든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으로서의 가치 전체, 즉 모든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으로서의 가치의 세계에 대해 눈 멀어있음을 뜻한다.

둘째, 섭생본능 이외에도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 예술본능, 지식본능, 도덕본능, 종교본능 등 다양한 유형의 본능이 존재한다. 섭생본능이 먹을 것으로서의 가치의 세계를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개시해주듯이 다른 본능들 각각도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에 대응하는 가치의 세계를 개시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가치개시작용은 가장 근원적인 유형의 가치경험으로서 1) 본능적 지향성, 2) 정립작용, 3) 감정 등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가치개시작용이 본능적 지향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가치개시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본능적 지향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가치개시작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존속하며 그러한 점에서 가치개시작용은 본능적 지향성을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가치개시작용은 개시된 가치의 세계를 향하면서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 즉 정립작용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개시된 가치의 세계에 대해 그것이 본능적 지향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거나 생각하면서 흥분, 기대 등의 감정을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치개시작용은 1) 본능적 지향성, 2) 정립작용, 3) 감정 등 세 가지 요소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작용이다. 여기서 가치개시작용을 전체적인 작용이라 부르고 1) 본능적 지향성, 2) 정립작용, 3) 감정 등 세 가지 요소를 부분적인 작용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정립작용을 도외시하고 본능적 지향성과 감정이라는

요소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가치개시작용은 감정과 근원적 욕구로서의 본능적 지향성의 결합체, 즉,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스톤이 “정감적 욕구”라고 부르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 IV. 본능적 지향성과 가치개시작용 이후의 가치경험들

가장 근원적인 유형의 가치경험인 가치개시작용을 통해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가치의 세계가 열리면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C의 예에서 p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로서의 가치가 C에게 개시된 후 C는 p를 맞보아가면서 p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를 토대로 p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 가치경험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본능이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발생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3)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자.

##### 1.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하는 점은 논란거리이다. 가치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중에는 가치경험의 유형을 구별하려는 시도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셸러(M. Scheler)는 가치직관(Wertanschauung)과 가치인식(Werterkenntnis)을 구별한다.<sup>21)</sup> 또 힐데브란트(D. von Hildebrandt)는 가치지각(Wertnehmen), 가치반응(Wertantwort), 가치인식(Wertkenntnis), 가치판단(Urteilen über Werte) 등을 구별한다.<sup>22)</sup> 필자의 독서범위에서 볼 때 힐데브란트의 구별이

21) M. Scheler (1980), 87.

22) D. von Hildebrandt (1930), 211-212.



가장 상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별은 불투명한 점을 안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처럼 그의 구별이 문제를 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앞서 살펴본 C의 가치경험을 발생적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서 살펴본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물로서서의 p의 가치가 C에게 개시된 후 C는 p를 맛보면서 그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C는 p의 가치를 선술어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술어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선술어적 가치경험과 술어적 가치경험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선술어적 가치경험의 경우 가치지각작용, 가치기억작용, 가치기대작용, 가치상상작용 등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선술어적 가치경험을 토대로 술어적 가치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술어적 가치경험은 가치판단작용, 가치추론작용 등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으로 나누어진다. 또 이처럼 다양한 술어적 가치경험은 선학문적 가치경험과 학문적 가치경험으로 나누어진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C가 선학문적으로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p에 대해 가치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가 영양학 전문가일 경우 그는 p를 맛보면서 영양학적 관점에서 p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면서 그에 대해 가치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에 대한 학문적 가치경험은 영양학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학, 미학, 약학, 의학, 보건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선학문적 가치경험이든 학문적 가치경험이든 모든 술어적 가치경험은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정당화적 가치경험과 비정당화적 가치경험이 구별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가치개시작용을 비롯해 가치지각작용, 가치기억작용, 가치기대작용, 가치상상작용, 가치판단작용, 가치추론작용, 정당화적 가치경험, 비정당화적 가치경험, 선술어적 가치경험, 술어적 가치경험, 선학문적 가치경험, 학문적 가치경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을 구별할 수 있다.

## 2. 본능과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발생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은 모두 다양한 유형의 욕구를 토대로 하여 발생하며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본능적 지향성을 토대로 하여 발생한다. 앞서 3절에서 우리는 가치개시작용이 다양한 유형의 본능적 지향성에 토대를 두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는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역시 최종적으로는 본능적 지향성에 토대를 두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치지각작용의 구조를 살펴보자.

가치지각작용은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유형의 가치경험이다. 여타의 모든 가치경험은 가치지각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가치지각작용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치기억작용은 이전에 수행된 가치지각작용에서 경험된 가치를 기억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가치지각작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가치기대작용은 장차 가치지각작용 속에서 경험될 가치를 기대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가치지각작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가치판단작용은 가치지각작용 속에서 선술어적으로 경험된 것을 술어적으로 해명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가치지각작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학문적 가치경험은 가치지각작용 속에서 경험된 가치를 학문적으로 해명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가치지각작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가치지각작용은 그 후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발생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가치지각작용이 그 후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발생적 토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가치지각작용의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가치지각작용이 발생적으로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그에 토대를 둔 모든 유형의 가치경험 역시 발생적으로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치지각작용은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그 후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역시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가치지각작용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해명하기로 하자.

앞의 예에서 음식물로서의  $p$ 의 가치가  $C$ 에게 개시된 후  $C$ 는  $p$ 를 맛보면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치지각작용을 수행한다. 이 경우  $p$ 에 대한  $C$ 의 가치지각작용이 수행되는 이유는  $C$ 가 자신의 섭생본능을 충족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p$ 에 대한  $C$ 의 가치지각작용이란 다른 아닌  $C$ 의 섭생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리고  $C$ 의 섭생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p$ 에 대한  $C$ 의 가치지각작용은 그의 섭생본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C$ 에게서 작동하는 섭생본능은  $p$ 에 대한  $C$ 의 가치지각작용의 발생적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화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본능 각각이 그것이 향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가치지각작용의 발생적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해당 본능이 작동한 적이 없거나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에 토대를 둔 가치지각작용뿐 아니라, 그 후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가치지각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은 모두 가치지각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가치지각작용은 본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능의 작동과 전혀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 학문적 가치경험도 본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한 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앞서 든 예에서 섭생본능이 작동한 적이 없어서 음식물로서의 가치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음식물의 가치에 대한 학문적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본능과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구성요소들

앞서 III장 말미에서 우리는 본능과의 연관 속에서 가치개시작용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본능과의 연관 속에서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자. 가치지각작용을 비롯해 그에 토대를 두고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각각이 어떻게 본능에 토대를 두고 발생하는지 살펴보면서 그들 각각의 구성요소를 해명하는 일은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의 핵심적인 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이처럼 본능과의 연관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구성요소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C의 가치경험을 다시 예로 들어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중에서 가장 단순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해당하는 가치지각작용의 구성요소만을 그의 발생적 토대인 본능과의 연관 속에서 해명해보고자 한다. p에 대한 C의 가치지각작용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1) 앞서 논의되었듯이 C가 p를 맞보면서 그에 대한 가치지각작용을 수행하는 이유는 그에게서 섭생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C에게서 섭생본능이 작동하는 동안 p에 대한 C의 가치지각작용은 계속되며 섭생본능이 완전히 충족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C의 가치지각작용은 중단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섭생본능의 지향성은 p에 대한 C의 가치지각작용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이다.

2) C가 p에 대한 가치지각작용을 수행하면서 그는 p에 대해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C가 p에 대해 만족할 경우 그는 p에 대한 만족의 감정을 가지게 되며, 그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불만족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치지각작용은 만족의 감정, 불만족의 감정 등 감정을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감정의 요소가 없이는 그 어떤

가치지각작용도 존재할 수 없다.

3) p에 대한 가치지각작용을 수행하면서 C는 p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p가 존재한다는 생각, 즉 p에 대한 정립작용은 가치지각작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정립작용이 없으면 그 어떤 가치지각작용도 존재할 수 없다.

4) p에 대한 가치지각작용을 수행하면서 C는 p가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즐기려 노력하고 p가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C의 노력을 넓은 의미에서 의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지 또한 가치지각작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치지각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

p에 대한 C의 가치지각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1) 본능적 지향성, 2) 감정, 3) 정립작용, 4) 의지 등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가치지각작용을 구성하는 이러한 4가지 구성요소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4가지 요소들은 서로 외적으로 우연히 결합되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이 본질적 통일체를 이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본능적 지향성이다. 그 이유는 본능적 지향성이 나머지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할 수 있는 발생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본능적 지향성은 가치지각작용의 발생에 있어 감정, 정립작용, 의지 등의 구성요소를 발생시키면서 그것들과 켈래야 켈 수 없이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 지향성과의 연관 속에서 가치지각작용뿐 아니라, 여타의 모든 유형의 가치경험의 구성요소들을 발생적 현상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상세하게 해명하

는 일은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더 발달한 유형의 가치경험은 덜 발달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비해 더 많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술어적 가치경험의 일종인 학문적 가치경험은 술어적 가치경험의 일종인 가치지각작용보다 더 많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후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술어화작용, 판단작용, 추론작용 등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가치지각작용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논의를 하듯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본질적 통일체를 이룸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본능적 지향성이다. 이는 가치지각작용의 경우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에 토대를 두고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가치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유형의 가치경험들 각각은 본능적 지향성과 더불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능적 지향성은 이러한 요소들이 본질적 통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 V. 가치경험의 본성(1): 욕구주의와 가치실재론-가치관념론 논쟁

지금까지 필자는 본능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가치경험을 분석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하고자 시도하였다.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가치경험의 최종적 원천인 본능 및 다양한 유형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론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처럼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론으로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다른 이론들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가치경험의 본성은 1) 가치경험의 발생적 원천, 2) 가치경험의 구조, 3)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공통적인 요소로서의 가치경험의 본질, 4) 가치에 대해 가치경험이 수행하는 기능 등 여러 가치를 뜻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의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우선 이 4가지 의미의 본성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 즉 가치에 대해 가치경험이 수행하는 기능이라는 의미의 가치경험의 본성의 해명을 위해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가치경험이 가치에 대해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욕구주의는 종종 가치론적 관념론을 함축하는 철학적 입장으로 간주되곤 한다. 흔히 욕구는 그 자체 가치경험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이며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간주되는 대상에게 가치를 “귀속시키는” 작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욕구주의를 가치론적 관념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욕구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에렌펠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치가 있는 것들로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치있다고 부르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에렌펠스의 입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가치론적 관념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가치경험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디(G. Oddie)는 욕구가 “가치를 창출하는”(generating value)<sup>24)</sup>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구가 없다면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렌펠스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당연시하는 것과는 달리 욕구주의와 가치론적 관념론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인 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욕구를 토대로 수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은 “가치를 창

23) C. von Ehrenfels (1962), 246. 다음 문헌에서 재인용함: K. Schuhmann (1997), 114.

24) G. Oddie (2015), 76.

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2절에서 논의된 예는 욕구가 “가치를 창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섭생본능에 토대를 두고 수행되는 p에 대한 C의 가치경험이 보여주듯이 섭생본능이라는 선천적인 욕구는 조약돌처럼 “먹을 가치가 없는 것”을 “먹을 가치가 있는 것”, 즉 음식으로 탈바꿈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섭생본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아니라, 가치경험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필자는 본능적 지향성을 통하여 수행되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가치경험을 “가치개시작용”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 경우 “가치개시작용”이란 가치경험의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이 주체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용을 뜻한다.<sup>25)</sup>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치개시작용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들은 모두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가치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전개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가치론적 관념론이 아니라, 가치론적 실재론을 지지한다.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에 따르면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욕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치경험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경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욕구는 가치경험의 가능조건임이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욕구는 일종의 노에시스요 가치는 일종의 노에마로서 양자 사이에는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가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의 노에마는 그에 상응하는 노에시스 없이는 경험될 수 없듯이 노에마로서의 가치는 노에시스로서의 욕구 없이는 경험될 수 없다.<sup>26)</sup> 여기서 유

25) 드럼몬드(J. J. Drummond)는 가치론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가치개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 J. Drummond (2002), 30-31.

26) 마리에타(D. M. Marietta, Jr)는 가치경험에 있어서의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 M.



의해야 할 점은 가치가 욕구가 없이는 경험될 수 없다는 명제를 가치론적 관념론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가치는 욕구에 의해 창출된다거나 가치는 욕구에 의해 대상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가치론적 실재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현상학적 욕구주의가 가치란 모든 가치경험의 주체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서 객관적 또는 절대적으로 경험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가치론적 객관주의 내지 가치론적 절대주의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가치경험의 주체들에게 객관적 타당성 내지 절대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가치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들, 즉 주관적 타당성 내지 상대적 타당성만을 지닌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가치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가치맹의 예가 보여주듯이 가치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경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치경험의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는 욕구의 작동을 통해 가치에 대해 감수성을 가진 주체, 즉 가치에 대해 눈을 뜬 주체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경험될 수 있다. 말하자면 특정한 가치에 대해 가치맹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 가치는 객관적 타당성 내지 절대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경험되기는 고사하고 주관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도 경험될 수 없다.

2) 가치에 대해 눈을 떠 그에 대해 감수성을 가진 주체가 가치경험을 할 경우 이 가치는 오직 한 가치경험의 주체에게만 타당성을 가질 경우처럼 주관적 타당성의 양상에서 경험될 수도 있고, 일군의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타당성을 가질 경우처럼 상호주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모든 가치경험의 주체에게 타당성을 가질 경우처럼 객관적 타당성 내지 절대적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sup>27)</sup> 그러나 유한한 가치경험의 주체들인 우리는 어떤 가

---

Marietta, Jr. (1997), 11ff.

27) 이 주체와 관련된 분석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J. J. Drummond (2002), 35ff.

치가 어떤 유형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서 결정할 수 없다. 어떤 가치가 어떤 유형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은 가치경험의 주체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 가치경험의 주체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일군의 가치들은 객관적 타당성, 즉 절대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일군의 가치들은 단지 주관적 타당성 내지 상호주관적 타당성만을 지닐 수 있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군의 가치들이 단지 주관적 타당성 내지 상호주관적 타당성 밖에 지닐 수 없음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가치론적 실재론이 부당하며 가치론적 관념론이 타당하리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 VI. 가치경험의 본성(2)

그러면 이제 현상학적 욕구주의가 어떻게 1) 가치경험의 발생적 원천, 2) 가치경험의 구조, 3)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공통적인 요소로서의 가치경험의 본질 등 세 가지 의미의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의 일차적인 목표는 가치경험의 발생적 기원을 해명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욕구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본능적 지향성을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원천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합리주의나 정감주의와 구별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유형의 본능적 지향성을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원천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단지 욕구를 가치경험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욕구주의와도 구별된다. 합리주의, 정감주의뿐 아니라, 기존의 욕구주의 역시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원천인 다양한 유형의 본능적 지향성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을 그 뿌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모두 구체적인 가치론으로서의 발생적 현

상학적 욕구주의와는 달리 파생적이며 추상적인 가치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가치경험은 나름의 고유한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어떤 하나의 가치경험의 구조는 그것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하는 점을 통해 결정된다.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 각각에 대하여 그의 구성요소들과 이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해명하면서 가치경험의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앞서 수행된 분석을 되돌아보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가치경험의 구조를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개시작용은 본능적 지향성, 감정, 정립작용 등의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성요소들은 본능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나름의 고유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또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지각작용은 본능적 지향성, 감정, 정립작용, 의지 등의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역시 본능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나름의 고유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가치개시작용과 가치지각작용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타의 유형의 가치경험에 대해서도 그의 구성요소들과 이러한 요소들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방식을 해명하면서 그 각각의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3)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공통적인 요소들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경험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욕구, 감정, 정립작용은 가치개시작용과 가치지각작용에 공통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듯이 욕구, 감정, 정립작용은 가치개시작용과 가치지각작용뿐 아니라, 여타의 모든 유형의 가치경험에 공통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가치경험의 본질은 그것이 욕구, 감정, 정립작용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욕구, 감정, 정립작용이 모든 유형의 가치경험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경험은 정당하게 욕구라 불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 불릴 수도 있으며 정립작용이라 불릴 수도 있다. 이는 어떤 책상이 “갈색”이라는 속성과 “단단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갈색이라 불릴 수도 있고 단단하다고 불릴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처럼 모든 가치경험이 욕구라 불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 불릴 수도 있으며 정립작용이라 불릴 수도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합리주의, 정감주의, 과거의 욕구주의 등이 출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모든 가치경험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에서 정립작용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정립작용, 즉 이성을 가치경험의 본질로 간주하는 합리주의가 출현할 수 있었다. 또 그 중에서 감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감정을 가치경험의 본질로 간주하는 정감주의가 출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욕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욕구를 가치경험의 본질로 간주하는 과거의 욕구주의가 출현할 수 있었다. 앞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 이외에도 “합리주의적 정감주의” 등 잡종 형태의 가치론적 입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정립작용, 감정, 욕구 등 가치경험의 본질적 구성요소들 중에서 정립작용과 감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경우 정립작용(이성)과 감정의 통일체를 가치경험의 본질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적 정감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정립작용, 감정, 욕구 중에서 감정과 욕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정립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경우 감정과 욕구의 통일체를 가치경험의 본질로 간주하는 “정감주의적 욕구주의”(“욕구주의적 정감주의”)가 출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정립작용, 감정, 욕구 중에서 정립작용과 욕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경우 정립작용과 욕구의 통일체를 가치경험의 본질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적

욕구주의”(“욕구주의적 합리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론적 입장들 각각은 나름의 방식으로 가치경험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가치경험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가치경험의 본질은 욕구, 감정, 정립작용의 불가분의 통일체이지 그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의 통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입장들이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합리주의가 강조하는 정립작용뿐 아니라, 정감주의가 강조하는 감정, 욕구주의가 강조하는 욕구 역시 구체적인 가치평가가 작용의 본질적인 요소인 정립작용, 감정, 욕구의 통일체로부터 추상을 통해 파악된 단편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가치경험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구체적인 가치론임이 드러난다.

## VII. 맺는 말 -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필자는 본능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욕구와 가치의 관계를 해명하면서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고 그를 통해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정초하려는 시도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완벽하게 정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다방면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1) 욕구는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의 정립을 위해서는 욕구 개념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 논문에서 선천적인 욕구인 본능 개념을 해명하였다. 앞으로 본능 개념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후천적인 욕구에 대한 분석, 본능과 후천적인 욕구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는 본능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가치경험의 노에시스적 측면과 노에마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면서 다각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두 측면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가치경험의 노에시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가치경험의 노에시스적 측면을 보다 더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가치 세계, 가치의 실재성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치경험의 노에마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나,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치경험의 노에마적 측면에 대한 다방면의 구체적이며 상세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3) 논의를 시작하면서 언급하였듯이 가치경험의 본성을 해명하면서 가치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철학사뿐 아니라, 현상학, 분석철학을 비롯해 현대철학의 다양한 사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 역시 앞에서 철학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뿐 아니라, 현대철학의 다양한 사조들에서 선보인 가치론을 염두에 두고 그 중의 일부와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전개하고자 시도하였다. 발생적 현상학적 욕구주의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철학사와 현대철학의 다양한 사조들에서 선보인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과 보다 더 활발하게 비판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남인 (2015) 「겔렌의 본능축소론 비판을 통한 본능 개념의 현상학적 정립」, 『철학사상』 56.
- Cudworth, R. (1996). *A Treatise Concerning Eternal and Immutable Morality with A Treatise of Freewi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mes, J./Jacobson, D. (2000). "Sentiment and Value," in: *Ethics* 110.
- Drummond, J. J. (2002). "Aristotelianism and Phenomenology," in: J. J. Drummond/L. Embree (eds.),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o Moral Philosoph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Ehrenfels, C. von (1962). *Philosophische Schriften*, vol. 1, Munich/Vienna: Philosophia Verlag.
- Gehlen, A. (1974).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Frankfurt/M.: Athenaion Verlag.
- Hartmann, N. (1963). *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 Hildebrandt, D. von (1930). *Die Idee der sittlichen Handlung*, Halle a. d. S.: Max Niemeyer.
-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sserl, E. (1998). *Vorlesungen über Ethik und Wertlehre 1908–1914*,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usserl, E. (2004). *Einleitung in die Ethik.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0 und 1924*,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usserl, E. (2014). *Grenzprobleme der Phänomenologie. Analysen des Unbewusstseins und der Instinkte. Metaphysik. Späte Ethik. Texte aus dem Nachlass (1908–1937)*, Dordrecht: Springer.
- Johnston, M. (2001). "The Authority of Affect,"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3/1.

- Jonas, H. (2000). *The Genesis of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N.-I. (1993).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Marietta, Jr., D. M. (1997). "The Concept of Objective Value," in: J. G. Hart/L. Embree (eds.), *Phenomenology of Values and Valuing*,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Oddie, G. (2015). "Value and Desires," in: I. Hirose/J. Ol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Value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tter, J./K. F. Gründer, K. F./G. Gabriel (2004). (eds.),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12*, Basel: Schwabe AG.
- Schefer, S. (2010). *Equality and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eler, M. (1980).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Berlin/München: Francke Verlag.
- Schuhmann, K. (1997). "The Notion of Value in Christian von Ehrenfels," in: J. G. Hart/L. Embree (eds.), *Phenomenology of Values and Valuing*,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ABSTRACT

## Instinctive Intentionality and the Nature of Valuing - Toward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Value

Lee, Nam-In

In this paper, I will try to develop a genetic phenomenology of valuing as a genetic-phenomenological conativism. In section 1, I will clarify what conativism means. In section 2, I will show the necessity of paying attention to the various kinds of instinct in order to clarify the nature of valuing, and I will also attempt to clarify the concept of instinct itself. Thereafter in sections 3–4, I will analyze the role of instinct in the genesis of the manifold forms of valuing. In sections 5-6, I will illuminate the nature of valuing. Finally, in section 7, I will conclude with some remarks on the future tasks of the genetic phenomenology of valuing.

**Subject Class:** Phenomenology, Practical Philosophy, Theory of Value

**Keywords:** Disclosure of Value, Idealism, Instinct, Instinctive Intentionality, Nature, Phenomenology, Realism, Value, Valuing